



50년 만에 1억→1조5489억원...대회마다 '신기록 중계권료'

(1964인스부르크동계올림픽)

(2014소치동계올림픽)

1956년 코르티나 담페초 대회 첫 TV 전파
1964년 인스부르크 대회 첫 전종목 생중계
2014년 소치 200개국 310개 채널 송출
평창 대회선 美 NBC서 총 2400시간 중계



9일 열린 평창올림픽 개막식. 평창올림픽 주관방송사인 미국 NBC는 대회 기간 동안 2400시간 이상 중계하는 조건으로 IOC에 총계로 9억6300만 달러(1조506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NBC 관계자는 8일 평창올림픽 광고 판매액이 9억 달러(9819억원)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소치올림픽보다 1억 달러 이상 많은 액수다. 평창 | 김중현 기자 won@donga.com

드디어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의 역사적인 개막행사가 9일 지구상 모든 가정으로 파고들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50억 명의 인구가 TV나 PC, 모바일 등을 통해 지켜본다고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마케팅 가이드는 예측했다.

개막식의 키워드는 정성아리랑과 통가 근육맨, 남북한 공동입장,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선수의 성화전달, 피겨여왕 김연아의 성화점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ICT기술(LED 아트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화려한 그래픽 기술, 평창 밤하늘을 날았던 드론 오륜기) 등으로 정리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자로서는 3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해왔는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동시에 엄청난 자부심도 느낀다. 1924년 알프스 산기슭의 작은 마을 프랑스 샤모니에서 제1회 동계올림픽(최초는 올림픽 동계주간으로 불림, 1925년 프라하 총회에서 동계올림픽으로 추인)이 벌어질 때만해도 이처럼 전 지구인이 즐기는 대형 행사로 발전할지는 누구도 몰랐다. 방송의 발전이 없었다면 올림픽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소박한 잔치로 남았을 것이다.

●올림픽 방송 역사 시작은 히틀러와 괴벨의 공?
올림픽에 처음 방송이 등장한 것은 1936년 독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과 베를린에서 열린 동, 하계대회 때다. 누구보다 대중선전에 능했던 히틀러의 심복 괴벨은 올림픽의 상징으로 성화를 등장시켰고 라디오 방송과 영화를 통해 제국의 우월성을 독일국민은 물론 적대국에게도

선전하고자 했다. 처음으로 방송 중계권료가 올림픽에 등장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동·하계 올림픽이 2차례 취소된 뒤 다시 열린 1948년 런던하계올림픽 대회 때다. 영국의 BBC는 올림픽의 중계권료로 1000파운드(144만원)를 지급했다. 동계올림픽을 처음으로 현장에서 인방으로 중계했던 대회는 1948년 스위스 생 모리츠 때였다. 미국의 한 방송사가 대서양을 건너 유럽 현지에서 벌어진 경기상황을 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도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방송은 라디오의 영역이었다. 동계올림픽에 TV가 등장한 것은 1956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대회 때부터다. 이탈리아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이 경기를 중계했다. 이 가운데 스키와 아이스하키 스키에팅 경기는 유러비전이 생방송으로 유럽 각국에 중계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곳은 눈과 얼음이 있는

산골인데 이런 오지로 많은 사람이 갈 수 없는 현실의 제약이 있다. 그래서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TV방송의 등장은 필요했다. TV는 올림픽의 인기를 높이는 결정적 요소였다. 초창기 메이저리그 야구가 라디오 방송중계와 함께 성장하고 FIFA 월드컵이 1970년 멕시코 대회에서 처음 시도된 컬러TV 중계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발전한 것과 같은 이치다.

●대회 때마다 신기록을 세우며 상승하는 방송 중계권 계약
1960년 미국 스쿼벨리 대회는 미국의 방송사가 5만 달러(약 5000만원)를 주고 중계권을 샀다.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이 생중계 됐다. 중계권료는 94만 달러(약 1억원)이었다. 4년 뒤인 1968년 프랑스 그르노블 대회 때는 250만 달러(31억원)로 훌

쩍 뛰었다. 1972년 일본 삿포로 대회 때는 850만 달러(102억원)로 점프했다. 후안 사마라치 IOC 위원장의 장기집권 시절인 1980년대 이후 올림픽은 방송과 손잡고 엄청난 부를 만들어냈다. 지나친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순수한 아마추어 스포츠경기가 방송사의 수익을 위한 아이টে็ม으로 전락한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쏟아지는 돈 앞에서는 누구도 침묵했다. 역대동계올림픽 방송 중계권료가 어떻게 변했는지 관련 표를 보면 별다른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1998년 일본 나가노 대회 때는 미국의 CBS를 비롯해 유럽, 일본, 캐나다 등 6개 방송사가 5개 경기센터의 취재를 나눠서 맡았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는 미국 NBC와 유럽의 UER, 일본, 캐나다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라틴 아메리카와 대한민국이 새로 추가됐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대회는 아메리카대

역대 동계올림픽 방송 중계권료 변화 표 (역수는 추산)

연도	대회	중계권료(단위 달러/억)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94만/1억
1968년	프랑스 그르노블	260만/31억
1972년	일본 삿포로	850만/102억
1976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1160만/140억
1980년	미국 레이크플레시드	2070만/248억
1984년	유고 사라예보	1억270만/1232억
1988년	캐나다 캘거리	3억2490만/3900억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2억9190만/3500억
1994년	스웨덴 릴레함메르	3억5290만/4235억
1998년	일본 나가노	5억1350만/6162억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5억5500만/6660억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	8억3300만/9996억
2010년	캐나다 밴쿠버	12억7950만/1조5354억
2014년	러시아 소치	12억9000만/1조5489억

륙과 아시아대륙 전체, 유럽연합, 오세아니아 지역을 이어 아프리카대륙도 추가됐다. 당시 아프리카대륙의 중계권료는 60만 달러였다. 지구상 모든 대륙이 동계올림픽 방송에 참가하는 첫 글로벌 대회였다. 2010 캐나다 밴쿠버 대회는 처음으로 1000명을 고용한 올림픽방송사 CBS가 5.1서라운드 사운드 HD 방송으로 주관방송사 역할을 맡았다. CBS는 함께 900시간의 생중계권을 가진 235개 나라의 TV방송사와 지구에 영상을 송출했다. 대회의 시청자는 35억 명으로 추산됐다.

2014 러시아 소치 때는 3200명 직원으로 구성된 올림픽방송서비스(OBS)가 올림픽미디어시스템을 맡았다. OBS는 중계권을 가진 8개 방송사에 함께 1300시간 동안 생중계로 송출했다. 경기는 200개 나라에 310개 지상파 채널을 포함해 41개 채널을 통해 중계됐다.

이번 평창대회는 미국의 NBC유니버설이 지상파 NBC뿐 아니라 계열 케이블방송사, 인터넷(모바일 포함)채널 등을 총동원해 올림픽기간 동안 총 2400시간 이상을 중계한다. 겨울올림픽 사상 최장 시간 중계기록이고 사상 첫 UHD 지상파 중계다. 이제 올림픽과 방송중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김중현 기자 marco@donga.com

열여덟살 스노보드 셋별 제라드...미국에 첫 금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 87.16점
3차시도서 고난이도 기술로 역전 우승

미국의 스노보드 레드먼드 제라드(18)는 어릴 때부터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자랐다. 콜리블랜드에서 태어나 2세 때 처음 스노보드를 접했고, 7세 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기 위해 콜로라도로 이사했다. 콜로라도 집 뒤에는 스

노보드를 탈 수 있는 시설이 갖춰졌다. 그곳에서 운동에만 전념하면서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였고, 언제 어디서든 과감한 시도를 하면서 대담함을 키웠다. 이런 노력들은 창의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됐다.

2015~2016시즌 세계무대에 데뷔한 제라드는 2016~2017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랭킹 1위에 오르며 주목 받았다. 하지만 올림픽 무대는 녹록치 않다. 쟁쟁한 선수들이 한 무대에서



레드먼드 제라드

경쟁하고, 강한 바람 등 낯선 환경과도 싸워야한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뛰어넘어야만 정상에 설 수 있다. 미국 스노보드대표팀 남자선수 가운데 최연소로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제라드는 11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 스노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에서 87.16점을 받아 우승했다. 이번 대회 미국의 첫 번째 금메달이다.

슬로프스타일은 레일, 테이블, 박스, 윙 등 각종 기물들과 점프대로 구성된 코스에서 진행된다. 출전선수는 자신이 연기할 기물을 선택할 수 있다. 6명의 심판이 높이, 회전, 테크닉, 난이도 등에 따른 연기 점수를 6명의 심판이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 뒤,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4명의 평균 점수로 순위를 가린다. 예선은 2번, 결선은 3번의 연기를 펼쳐 가장 높은 점수로 순위를 가린다. 제라드는 결선 1, 2차 시기에서는 강한 바람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3차 시기에서 고난이도의 기술을 완벽하게 연

기하며 짜릿한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맥스 패터(캐나다)가 86.00점, 마크 맥모리스(캐나다)가 85.20점으로 각각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했다.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제라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세계 정상 기쁨을 만끽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말 행복하다. 1, 2차 시기에서는 실망스러웠기에 완벽한 연기를 펼치려고 노력했다"고 웃었다. 제라드는 24일 바이에른에 출전해 2관왕을 노린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ing2@donga.com

SAFA 대한민국 전문업체

비디오 라디오 음악 노래방 녹음

휴대용 동영상과 노래방을 내손 안에!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SAFA

- ▶ 충전식 휴대용 SAFA 7인치 화면 액정 장착
- ▶ 언제 어디서나 노래방 음원 재생 (마이크만 연결하면 그곳이 바로 노래방)
- ▶ 언제 어디서나 HD급 비디오, 영화, 동영상 감상
- ▶ 라디오기능으로 재난시에도 라디오 청취
- ▶ 녹음기능, USB 메모리 사용기능
- ▶ 등산, 낚시, 여행갈 때 **아이 필수품**

이미자, 남진에서 박현빈, 장윤경까지 **1100곡 수록!**

▶ 노래방 음원 발매! ▶ 도전1100곡 7080 노래방 SD카드

▶ 전곡노래방 55곡 음원 선착순 무료증정! ▶ 후역의 팝송 1,000곡 발매!

www.sunsea.kr

행시기간중 50분 한정 마이크, AC충전기, USB 스틱 증정

▶ **이런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일이 경과하신분 제품보호용 필름을 제거하신분 서울상당지사: 02-522-2710

무료체험 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 인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입금계좌: 농협 356-1272-3414-43 씬모아**

구입문의: 1644-2464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 대할인 행사

"저잡음 회로 설계로 잡음이 적으며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대할인 행사**

2018년 최신제품

본 제품은 의뢰기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십시오!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건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작동, 급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 사용
10단계 음향조절기능

이런 때 사용하세요

- ▶ 가족, 친구와의 대화시 큰소리가 필요할 때
- ▶ TV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 ▶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을 때
- ▶ 상급사 상사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을 때
- ▶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음을 크게 듣고 싶을 때
- ▶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 ▶ 종교행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1회 충전시 24시간 연속사용
배터리 전량 확인기능 내장
하울링 방지 기능 내장

VA3000

www.sunsea.kr

★ 이런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품 후 구입하신분/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일이 경과하신분 제품보호용 필름을 제거하신분

무료상담전화: 1661-1224 **입금계좌: 농협 356-1272-3414-43 씬모아**

서울상당지사: 02-522-2710/1600-3851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무료체험 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 인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